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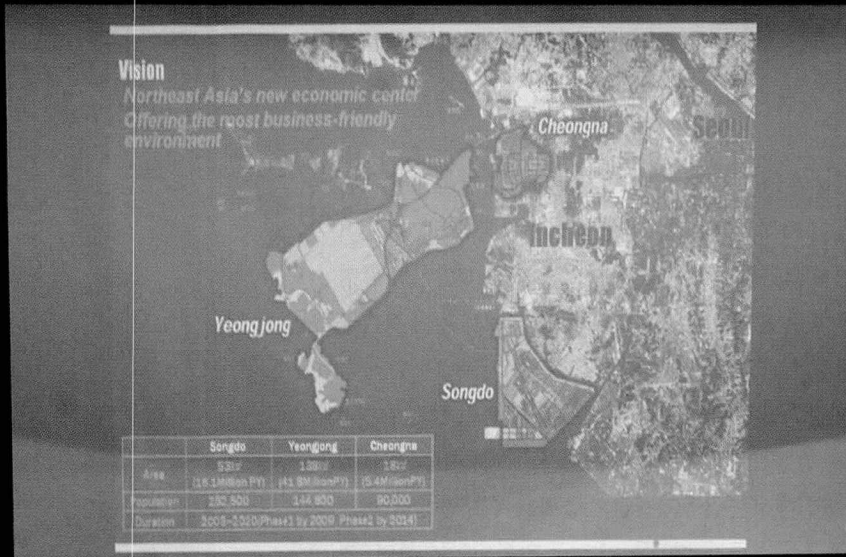
초고층건축과 도시 경쟁력

Super Tall Building and Urban Competition

경건축연구센터(ERC)

일시 : 2007년 5월 10일(목) ~ 11일(금) 09:00~

장소 : 건설회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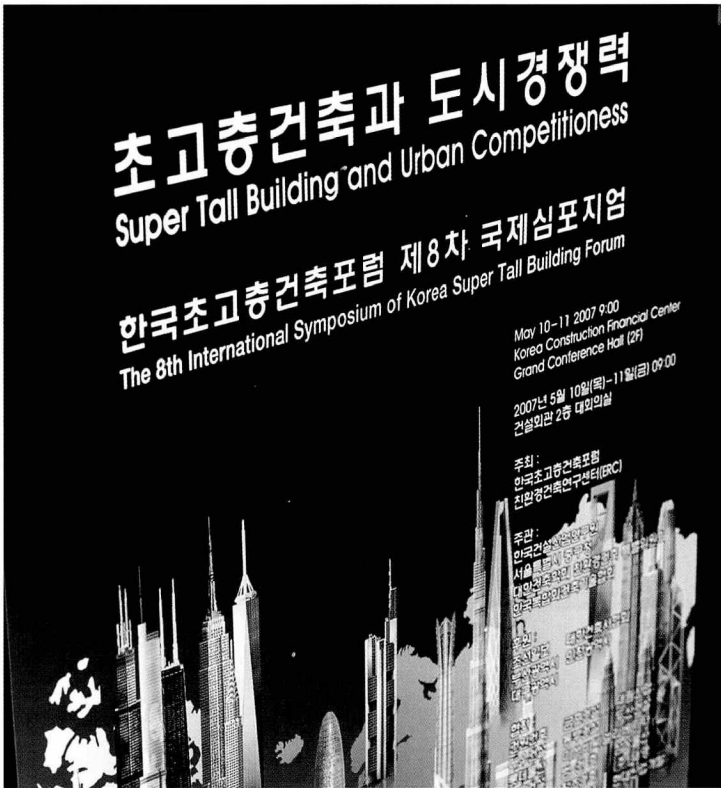
제8차 한국초고층건축포럼 국제심포지엄

초고층 건축물이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초고층건축포럼은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초고층 건축과 도시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초고층 건축의 건립을 통해 도시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초고층 개발사례와 국내·외 초고층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이 발표됐다. 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초고층 건축에 의한 도시개발전략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에디터 | 하유정 · 사진 | 최지영, 이종규, 고하진





지난 5월 10, 11일 이틀간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초고층 건축과 도시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제8차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서울시 중구청이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조선일보 등이 후원했으며,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와 인천시·대구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첫째 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신성우 의장의 개회사와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 대한건축학회 심우갑 회장 그리고 서울시 중구청 정동일 구청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초고층건축포럼 신성우 의장은 “국내 기업의 초고층 방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 초고층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첨단 건설기술의 종합체인 초고층 건축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기술 함양과 발전을 통해 초고층 건축이 도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첫날, 초고층 건축의 상징성·공공성 발표

심포지엄 첫째 날에는 해외 초고층 분야에서 미국의 설계회사인 KPF의 한지섭 상무가 홍콩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484m, 88층), 상하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492m, 101층)를 소개했고, 한양대학교 이은영 교수가 <도시적 맥락에서 본 초고층 건축>이라는 주제로 발표

했다. 이은영 교수는 한강, 강남 지역, 여의도 지역, 뚝섬, 성산대교 주변, 용산, 시청 주변으로 나눠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도심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한 청계천 주변을 구체적인 도시 공간적 컨셉트를 수용해 개발했다면 더욱 멋진 명소가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계단형 고층 건물을 그려 넣은 슬라이드를 마련해 새롭게 보여지는 청계천 모습을 제시했다.

국내 초고층 전문가 부분에서는 <초고층개발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아주대 제해성 교수가 발표했다. 제 교수는 “도시 개발에 있어 경제, 사회적 성과와 파급효과도 중요하지만 도시경관이 주는 시각적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과학기술이 집적돼 있는 초고층 건축물 건설을 통해 도시 이미지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고층 건물 건립계획이 랜드마크적 차원에서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고층 도시개발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지자체 부분에서 서울 중구청의 강맹훈 도시관리국장은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초고층을 통한 중구의 변화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각종 규제로 도시의 창의력을 제한하는 ‘역사 규제 도시’가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세계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의 유병운 경제자유구



신성우 한국 초고층 건축포럼 의장

안상수 인천시장

심우갑 대한건축학회 회장

정동일 서울시 중구청장

역청 팀장은 도시이미지 쇄신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천타워 추진에 대해 설명했고, 인천타워 건립의 최대 걸림돌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팀장은 "초고층 건축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규제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주제 발표가 끝나고 토론회와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임서한 주택공사 도심재생사업단장, 원재무 한양대 도시대학원장, 진철훈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이사장, 최찬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은 초고층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신혜경 논설위원은 초고층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지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고층이 건설기술의 종합체며, 기폭제라고 해서 무작정 짓

는 것이 아니라 임대수요나 외국기업 유치 등의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나라마다 도시의 특성이 다르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건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바이와 타이페이의 초고층이 멋지다고 우리의 특성을 무시한 채 똑같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인천 송도·청라 지역은 초고층을 짓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매립지이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규제가 있어도 초고층을 미리 예상하고 전체적인 지구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송도 초고층이 분양가상한제로 발목이 잡힌 사례를 말하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거 위주의 초고층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신 논설위원은 초고층이 필요하면 짓되 어디에 어떻게 어떠한 용도로 지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섭 KPE 상무

제혜성 아주대 교수

강명훈 서울 중구청 도시관리국장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

둘째 날, 초고층 건축의 예술성, 기술성, 경제성 언급

심포지엄 둘째 날에는 국내 초건축 전문가 부분에서 하미경 연세대학교 교수가 <초고층 건축의 조명계획 예술성>에 대해 현재 초건축 조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초건축 조명 디자인의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하 교수는 초고층 조명은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 야간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야간 도시경관이 품위가 있어야 하며, 미래의 한국을 이끌고 나아갈 역동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차학봉 조선일보 기사는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초고층 건축은 사회적·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초고층 건물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익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익성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초고층은 대부분 주거용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거용 초건축은 단지 내 조경시설이 폐쇄돼 있는 ‘그들만의 성’ 이지 랜드마크 초고층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경관을 살리는 초고층 건물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에 기여한 공공용지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24시간 개방하는 정원과 미술관이 있는 일본의 록본기힐스는 성공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경원대학교 이현희 교수는 초고층 주거 공간의 거주성 향상을 위해 외부 공간 계획을 지상부에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 높이, 주변 환경과의 단절조장방지, 보행자 눈높이의 시각통로(Visual Corridor) 확보, 보행자의 접근 유지, 인접 공공 시설물과 단지의 상호연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초고층건축포럼의 신성우 의장은 <초고층 시스템의 경제성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심포지엄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한 “초고층 건축은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의 미래건설산업이므로 초고층 도시 건축을 통해 도시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국내 초고층 건축가 부분의 마지막 발표자는 <국내 초고층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상의 과제>라는 주제로 호서대 권영진 교수가 맡았다. 권 교수는 “국내 초고층 건물은 막대한 수직하중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고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하고 있으나 성능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대형 건설회사에 의해 갑작스레 시작됐다”며 “현재 확산되고 있는 초고층 주거 건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권 교수는 “초고층 주거 시설은 초고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화재 발생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없으나 화재 발생 건수가 타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영향 평가와 성능 설계 등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국내 초건축 건설사세 부분에서는 삼성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이 차례로 나와 초고층 건축물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동영상을 통해 건대 스타시티의 설계 과정을 보여준 금호건설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총 900여 명이 참석하고, 3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제8차 한국초고층건축포럼 국제 심포지엄은 신성우 한국초고층 건축포럼 의장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최근 세운상가 일대에 22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초고층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하미경 연세대 교수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이현희 경원대 교수



권영진 호서대 교수